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판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뚫 그 모든 시도들이 전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은 끝났지만 북남관계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

대결과 전쟁행동은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판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관계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숙한 물음에 박근혜가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여 다음의 공개질문장을 보낸다.

1.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제제대결이 라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박근혜는 최근 《통일시대대비》니, 《통일대박》이니 뽀니 하고 《통일》라령을 늘어놓다 못해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구성》을 광고하며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다.

박근혜는 선전인 박정희도 받아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쉴란드식 통일》을 력설하고있다.

지어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 있다.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량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량방제통일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서 온 민족과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박근혜가 우리 나라를 도이쉴란드로 착각하고 체제통일을 부르짖는것 같은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

상이다.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되어있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

2.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제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결같은한걸을 나가겠다.》, 《신뢰조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해나서고있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때 특명을 받고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한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앉아서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였으며 지어 《금변사태》까지 운운하고있다.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 수반을 만나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100년 째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째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그래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 하는것이다.

대결과 신뢰는 량립될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쪽인가.

3.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리명박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고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화와 협력하여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력설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쉴란드행각때에도 《3대대북제안》이니 뽀니 하는것을 내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핵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퍽자리 감언리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도 《비핵, 개방, 3 000》을 내들었다가 쓴맛을 보았다.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한치도 차이나는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뽀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쌀것뿐이다.

북남관계에 《북핵》문제를 내드는것은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것인가, 관계개선을 하자는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핵무기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그 만돌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는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핵무기를 1 000여개나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장본인은 미국과 피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결코드는것은 파렴치한 께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니, 《울지프리덤 가디언》이니 뽀니 하는 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한 부질없는 불장난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미국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긴장과 북남관계파국의 화근이다.

박근혜는 미국핵에 대해 이제저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하여 오는 8~9월에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을 그만둔다는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5.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철폐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 데서 북남사이에 《군사적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벽을 쌓은것은 누구이고 그것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서부터 도이쉴란드를 행각한 박정희가 베를린 장벽을 보고 와서 구축한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다.

악명높은 반통일파조약법인 《보안법》 역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과 남을 격폐시키는 또 하나의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다.

우리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해체와 《보안법》철폐를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여왔다.

그것을 거부하고 북남사이에 장벽을 두겹세겹으로 더 두텁게, 더 높이 쌓고있는데는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령전의 잔재들인 반통일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6. 《임신부, 영유아영양지원》같은것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는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문제의 해결》과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같은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을 수차례 진행하고 인도적지원사업도 하였지만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어 매번 정세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었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야배나라의 왕, 나라의 꽃으로 최상의 특혜를 받고있는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폭을 더 깊히 패이게 할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

북남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없이 인도적문제요 뭘요 하는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에서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박근혜는 판전을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끼리 제안과 호소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가.

7.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보수이 쉴란드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동족대결정책과 《5. 24조치》때문이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진행해오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

민족의 물음앞에 대답해야 한다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첫출발을 좋게 뚫었던 북남관계는 오늘날 한치에도 내다볼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신뢰》를 부르짖으면서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성의에 도전해나섰다. 비록 이 불장난소동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도 인하여 북남관계는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온 겨레의 성의있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하에서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명령의 공개질문장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계속 대결과 전쟁행동에 매달리는 남조선집권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다.

박근혜는 집권하기 전부터 북남관계에서 《신뢰》라, 《원칙》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워왔으며 집권한 후에는 《통일시대대비》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통일》라령을 끝날을 어놓았다. 심지어는 끝나면 유럽땅에까지 찾아가 《3대대북제안》이라는것을 골자로 하는 《드레즈덴선언》

을 발표하면서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기 도 했다.

지금 북남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의 폭은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북남쟁방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서해 5개 섬지역을 비롯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사소한 우발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화할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남관계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과 전쟁작에 불려올이지 없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도이쉴란드식통일》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 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체제통일은 결국 전쟁을 초래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모두에게 엄청난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

는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량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으며 량방제통일방안은 그 현실상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있다. 박근혜가 이러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한국주도

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는것을 보면 그의 머리속에 무엇이 팍 들어찼는지 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내든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놓고보아도 그자만 다름뿐 신통히도 리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 000》과 일맥상통한 동족대결정책이다.

또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력설하면서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하면 미국의 첨단핵전력무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온 겨레와 세인의 비난과 저주를 받는 저들의 콩크리트분렬장벽과 불신과 단절, 고립의 장벽인 《보안법》을 없애버림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 무슨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허황한 소리도 하여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또 이런 《정부》가 만들어놓은 북남관계개선의 차단물

인 《5. 24조치》는 그대로 문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임신부, 영유

아영양지원》이니 하는 듣기에도 역겨운 말만 하고있는 남조선집권자들 신뢰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박근혜가 마치 《평화》에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있는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보다는 오늘 조선반도의 최대현실적지역인 서해 5개 섬 주변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북과 남의 어부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이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는것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현시기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전적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리행되어야 한다. 일족공통의 통일대강이고 리정표인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지금쯤 통일조국을 밝은 아침을 마주하고있었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밝힐 때가 되었다.

박근혜는 민족의 이 물음앞에 심사숙고하여 대답해야 한다.

정 학 준

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박근혜가 이미 해오던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교류의 순수한 교류》이니, 《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 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 《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위대야 끝이들을 사람이 없다.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 24조치》를 박근혜가 계속 붙들고있아 있는것은 자기 얼굴이나 꺾고 자기 손발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남보기에다 리명박과 똑같은 대결분자라는 인상밖에 줄것이 없다.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5.24조치》는 더이상 존속되어야 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다.

박근혜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8.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는것보다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을 평화와 통일, 화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선임자들이 들고나왔다가 온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된것만도 가슴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곳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목적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실제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는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9. 비방중상종지합의를 위반하고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것은 적반하장의 가스로운 망발이다.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있는것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주제 103(2014)년 4월 23일

평 양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도 박근혜는 《라인강의 기적》이니, 《드레즈덴은 구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국북과 통합의 상징》이라느니 하는

바로 보겠는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등에

업고 체제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분수없이 날치는 열강망둥이로밖에 볼수 없는것이다.

박근혜는 외세의존으로 일관된 저들의 요설이 북남간에 신뢰는커녕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을 덧쌓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것을 명실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조금이라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의향이 있다면 민족자주가 근본초석이라는것을 이 제라도 깨달아야 하며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외세

가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는 결단성있는 행동을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은 다른아닌 남조선당국과 박근혜자

신이다. 북과 남이 비방중상중지를 합의하고 돌아서자마자 《군자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 《북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입부리를 더 못되게 놀리고 괴뢰군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배라살포놀음을 벌린것이 누구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니, 《불확실성》이니 뽀니 하고 험담한것이 누구인가.

첫 단추만 잘 끼우게 해달라고 미사려구를 늘어놓고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배신하여 전쟁연습의 불꽃을 더욱더 위험하게 휘두르고 반공화국핵, 미싸일소동으로 정세를 극한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북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이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그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10.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 왔을것이다.

그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가 강요한 분단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분렬의 년몹이 69돌기를 새기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구상이 없고 제안이 부족하며 원칙과 방도가 결여되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현장과 대강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수 있는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립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앞에 옳바른 대답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